

'디카(디지털 카메라)의 유행은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이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다. 사진을 찍고 현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기술, 전시할 공간 등의 문제로 프로에게만 가능했던 '사진찍기'를 일반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휴대전화와 함께 디카를 휴대한 수백만명의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인터넷에서 그들이 찍은 사진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며, 세상을 바꾼다.

DIGITAL CAMERA (6)

글 : 강중구

■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를 찍을 때

지난해 언젠가도 그랬고 매해 불꽃축제를 열고 있다. 불꽃을 구경만 해왔다면 다음번에 사진으로 그 추억을 남겨보자. 불꽃이라는 것도 어두운 밤하늘에 빛의 궤적으로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든다. 사진으로 담기 위해서는 그 빛의 궤적을 잘 남겨야한다. 지난달에 찍었던 야경 촬영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불꽃이 어디로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먼저 불꽃을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상당한 광각계열의 렌즈를 가지고 있다면 가까이서도 가능하지만 대체로 멀리서 찍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무 작게 화면에 잡힌다 하더라도 3배 줌 정

도의 기능은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꽃이 작더라도 어느 정도는 줌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야경 사진이기 때문에 삼각대가 꼭 필요하다. 삼각대를 설치하고 불꽃이 올라올 자리를 예상하고 구도를 잡아본다. 그런 다음 카메라를 설정할 차례인데 매뉴얼 모드로 설정하고 셔터스피드의 값을 2초에서 8초 정도로 설정을 하고 조리개 값은 16이나 그 비슷한 수준이면 괜찮겠다.

그럼 이제 사진을 찍어보자!

아래의 사진들은 예시 사진들이다.



■ 폭포나 떨어지는 물방울을 찍을 때

폭포나 계곡의 물 흐름을 찍기 위해서는 저속의 셔터스피드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A모드나 M모드로 설정을 하고, 조리개를 조여야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ND필터를 사용해서 빛의 양을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 ND필터가 없다면 PL이나 CPL필터를 이용하여 빛의 양을 줄일 수 있다. PL이나 CPL필터를 보면 UV필터와 같은 필터들 보다 조금 더 어두운 것을 알 수 있다.

리드미컬한 물 흐름을 부분적으로 프레임 하려면 망원 쪽이 유리할 것이다.



물방울을 찍기 위해서는 우선 카메라를 수동 모드로 바꾸고, 셔터 속도를 빠르게 조정한다. 1/500, 1/1000, 1/2000 정도면 좋겠다. 셔터 속도가 빠르면 어두워 질 수 있으므로 조리개 값과 주위 환경(가능하다면 노출에 신경을 써서 조정한다.)을 잘 조정해야겠다. 그리고 오토포커스보다는 매뉴얼 포커스로 최단거리에 있는 사물(아무 사물이나 상관 없음)의 초점을 잡는다. 그리고 이때 사물과 카메라 렌즈사이의 거리를 눈대중으로 확인하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좀 전에 본 사물과 렌즈사이의 거리와 똑같이 거리를 잡는다.

이젠 촬영이다. 순간을 촬영한다.



물방울이나 파도를 실감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쪽의 배경을 선택하고 고속셔터를 사용하되 숫구치는 분수의 물방울을 멈추게 하려면 1/1000 초의 셔터 속도가 필요하다.